# AI 시험 부정행위 파장… 초소형 카메라 등 판매 규제 강화

**이커머스, 악용 우려 상품 점검**
**쿠팡·G마켓, 위장 카메라 판매 금지**
**11번가·롯데온, 검색어 관리 강화**
**알리익스프레스, 위반 판매자 제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지를 촬영해 AI를 이용해 풀고 이를 다시 전송받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가 관련 품목 단속에 나섰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AI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주요 플랫폼들은 위장형 촬영기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검색어와 광고 문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 판매업체에서는 관련 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최근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한 수석 합격자 한(34)모씨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AI 스마트안경 등으로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수법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광고와 홍보 콘텐츠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 운영정책에 따라 볼펜·시계·보조배터리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촬영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안경형 기기도 금지 대상이다. 현재 '펜 카메라', '안경 카메라', '초소형' 등 관련 키워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제휴 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에서도 시험 부정행위 관련 상품의 홍보를 금지했다. 최근 회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의 부정행위 활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암시할 경우 수익 지급 및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마켓도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 이후 판매자 관리 사이트 'ESM+'를 통해 관련 기준을 재안내했다.

스마트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리는 스티커나 커버도 판매 금지 대상이며, AI 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의 광고에 '커닝', '시험용' 등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11번가는 '몰래카메라', '히든카메라', '감청', '도청' 등을 금칙어로 지정하고 관련 상품과 상세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반 상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도 제재를 가한다. 롯데온 역시 불법·유해 상품 관련 키워드를 검색 금지어로 지정하고 판매 부적합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 설명에 시험 부정행위 활용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타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AI 기반 모니터링과 담당자 검토를 병행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품 판매 중단과 판매자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에서 답안을 전달받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이른바 '쌀알 이어폰'과 AI 스마트안경이 대표적이다. 두 제품 모두 정상적인 사용 목적이 있어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만으로 판매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판매업체들도 최근 부정행위 논란을 의식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다.

위장형 카메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A업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지를 띄우고 "특정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나 맞춤 제작해 구매할 수 없다"며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관한 문의는 응대 없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위장형 촬영기기 등 악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쿠팡, 친환경 포장재 상품 소비 촉진

**25일까지 '포장을 보다' 기획전**

쿠팡이 친환경 포장재 적용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포장을 보다'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제조·유통업계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 밸류체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조 기업이 제품 포장재 개선 방안을 고안해 적용하면 유통 기업은 지속가능성 평가를 거친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올해 해당 사업에 유통사로 새롭게 합류한 쿠팡은 무라벨 페트병, 재생원료 활용 포장재 등 친환경 포장재 확산과 소비자 인식 개선에 나선다.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담당 계열사 씨피엘비(CPLB)도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CPLB가 PB 상품의 포장재를 개선하면 쿠팡은 유통 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알리고 소비자의 구매를 지원한다. 제조와 유통 전반에 걸쳐 친환경 포장재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전에서는 포장재 감량 및 경량화, 재활용 용이성 및 재사용성, 친환경 소재 및 신기술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상품을 선보인다. 식품, 뷰티 등 카테고리의 150여개 상품이 참여한다.

구매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기획전 대상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쿠팡은 앱 내 메인 배너와 푸시 알림 등을 통해 행사를 알릴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 아이파크몰, 고디바 디저트 3종 단독 선봬

**용산점 리빙파크 매장서 판매**

아이파크몰이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와 협력해 디저트 신제품을 선보인다.

아이파크몰은 용산점 리빙파크 4층에 위치한 고디바 매장에서 기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하던 '다크 초콜릿 가나슈 크레페 케이크'와 신규 디저트 '쫀득 모찌 초콜릿 파르페', '스트로베리 초콜릿 파르페' 등 디저트 3종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쫀득 모찌 초콜릿 파르페'는 고디바의 초콜릿 풍미와 밀도 있는 식감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코코아 파우더를 입힌 카카오 모찌를 더한 메뉴다. 다양한 토핑과 초콜릿 드링크를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스트로베리 초콜릿 파르페'는 딸기 토핑을 더한 고디바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스트로베리 드링크를 조합한 메뉴다. 초콜릿과 딸기의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크 초콜릿 가나슈 크레페 케이크'는 고디바 10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디저트로, 세 가지 종류의 크레페를 다크 초콜릿 가나슈와 크림으로 층층이 쌓아 만들었다. 기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업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한다.

김윤호 아이파크몰 영업본부장(이사)은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파크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 CJ제일제당, K-씨푸드로 세계인 입맛 공략

**英·베트남·美서 쿠킹 클래스**
**현지 소비자 등 600여명 참여**
**수산물 활용 맞춤형 메뉴 선봬**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퀴진케이 K-씨푸드 쿠킹 클래스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한식 인재 발굴·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가 한국수산회와 함께 K-씨푸드의 글로벌 소비층 확대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영국·베트남·미국 3개국에서 진행한 'K-씨푸드 쿠킹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수산회와 뜻을 모아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은 김, 굴, 전복, 명란 등 한국 대표 수산물의 우수성과 활용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현지 식문화와 어우러지는 K-씨푸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일반 소비자와 셰프 지망생 등 약 600명이 참여해 한국 바다에서 온 식재료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8일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 베트남 하노이, 이달 6일 미국 시애틀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퀴진케이는 각국 현지 교육기관과 협업해 요리학교 재학생과 일반 소비자 대상 클래스를 각각 운영했다. 런던에서는 르꼬르동 블루, 하노이에서는 탕롱대학교, 시애틀에서는 사우스 시애틀 칼리지(SSC)와 손잡았다.

각 나라에서 강레오, 이찬양, 이연주 등 업계에서 주목받는 유명 셰프들이 쿠킹 클래스를 이끌었다. 임정동, 김지연, 윤상희 셰프 등 퀴진케이 알럼나이(Alumni) 소속 신예 셰프들도 현장에 함께하며 요리 시연과 참가자 실습을 지원했다.

메뉴는 각 나라 소비자들의 미식 취향을 고려해 구성됐다. 런던에서는 강레오 셰프가 광어를 세비체로, 김을 바삭한 카나페로 재해석하는 등 현지인들에게 한층 익숙한 방식으로 K-씨푸드를 소개했다. 하노이에서는 이찬양 셰프가 새우 김말이 튀김과 김소스를 곁들인 구운 전복 등을 선보이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제철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알뜰 장보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할인전**
**멤버십 특가·행사카드 할인 제공**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오는 25일까지 '우리동네 슈퍼맛켓'을 테마로 제철 신선식품과 일상 장보기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이번 행사에서 제철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멤버십 전용 혜택을 강화했다. 일자별 특가와 요리 테마별 카드 할인 등 다양한 장보기 혜택과 소비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첫 출하 딸기(500g)를 50% 할인 판매한다. '산해진미' 테마에서는 닭고기와 조개 전 품목을 멤버십 회원에게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23일에는 '정말 특별한 딱! 하루데이'를 열고 사과와 샤인머스캣, 채소, 육류 등을 특가로 선보인다. 24일 '화요일 단하루 골라딜'에서는 호빵 전 품목을 대상으로 행사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의 슈퍼맛5' 행사도 운영한다. 부대찌개, 어묵탕, 수육, 만두전골, 크림파스타 등 다섯 가지 요리 테마에 맞춰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구성했다. 해당 행사 상품을 5대 행사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365 맛있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장보기 상품을 연중 동일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에는 구운 땅콩(500g)과 삼육플러스 두유(950mL)를 새로 추가했다.

멤버십 앱에서는 'e-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한다. 회원은 구매 실적에 따라 e-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에 9개를 모으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카카오톡 채널을 새로 추가한 소비자에게는 웰컴 쿠폰팩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